

油價調整의 背景과 內容

— 動力資源部 —

I. 油價調整의 背景과 內容

지난 10월29일 제61차 OPEC (石油輸出国機構) 특별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原油輸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油價가 10월 1日字로 소급하여 배럴당 2달러가 인상되고, 또 그동안의 換率상승과 유전스利率 상승으로 原油導入金融費와 精製費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부득이 11월 29일 0 시를 기해 石油製品價格을 공장도가격으로는 평균 6%,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평균 5.7%를 각각 인상키로 하였다.

II. 調整原則과 要因

이번 石油類價格 조정의 원칙은 越冬期の 에너지 충격을 최소화하여 國民生活의 안정을 기하고, 國內物價의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한으로 반영했다.

이를 주요要因別로 보면, 첫째로 제61차 OPEC 特別閣僚會議에서 油價單一化가 합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複合平均單價는 종전의 배럴당 33.44달러에서 33.7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價格決定의 기초가 되는 最低導入社의 原油價도 종전의 31.44달러에서 32.92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安定基金을 다소 인하하고서도 우리나라 石油類製品價의 0.7% 인상요인을 안게 되었다.

둘째로, 換率은 油價決定時에 原油價상승과 통일한 작용을 하는 바 지난 4月の 油價調整時에는 달러당 6백77원80전이었던 것이 11월 13일 현재에는 6백90원으로 상승되어 1.6%의 油價引上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로 原油去來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유전스去來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유전스利率이 지난번 油價引上時에는 14.5%이던 것이 그동안 19%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安定勢를 되찾고 있지만, 그동안의 국제적인 高金利현상에 따른 金融費用의 증가등으로 原油導入金融費 및 精製費가 종전의 배럴당 3천7백43원에서 4천5백18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2.5%의 인상요인을 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產油國의 가격인상과 減產危脅에 처하기 위해 86년도에 정부 비축 60日分을 목표로 備蓄施設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石油輸入時 배럴당 1달러를 초과하여 비축시설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축시설의 확장과 함께 完工된 시설에는 原油를 구입하여 실제로 비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로 배럴당 1달러의 備蓄基金 징수가 불가피해 졌다.

그러나 越冬期の 油價引上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배럴당 50센트만을 備蓄基金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센트는 다음 기회에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징수하는 備蓄基金 50센트가 油價引上에는 1.2%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상의 인상요인으로 工場渡價格으로는 평균 6%의 油價引上이 불가피했지만 중간유통 과정에서의 販賣手数料는 전혀 인상하지 않고 형행 수준을 據置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인상은 5.7%에 그치게 되었다.

한편 이번의 油價引上으로 인하여 도매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1.0%이고, 소비자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0.03%이다.

Ⅲ. 油價管理制度의 改善

정부는 최근에 國際原油市場이 호전되고, OPEC에서 國際原油價 單一化가 합의됨에 따라 原油導入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싼 값으로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會社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비싸게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會社에 대해서는 高價差額은 補填하되, 補填幅에 있어서는 平均價와의 差額中 30%는 高價導入에 따른 케널티條로 자체 부담토록 하였다.

앞으로 國際原油價가 완전히 定着될 경우에는 현재의 안정기금제도와 基準原油價制度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國內油價制度를 정착화시킬 것이지만, 아직까지 油價單一化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低價導入에 따른 인센티브와 高價導入에 따른 케널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暫定制度를 적용해 나갈 것이다. *

油價·전기요금 6% 引上

휘발유(桶)	740원
등유	292원
경유	278원
빙커 C	211원
프로판(每當)	915원
나프타는 내려 2當	175원
주택유	72원 31저

내년下半期 精油社
高級휘발유
消費값 1

油類값 오늘부터

精製된 석유가 전기요금을 각각 6.0% 인상한다. 올차는 9월 01일부터 석유 1리터당 6.0% 인상(휘발유 740원, 등유 292원, 경유 278원, 빙커 C 211원, 프로판 915원)이다. 전기요금은 11월 1일부터 인상(주택유 72원 31저)이다. 휘발유는 11월 1일부터 인상(740원)이다. 등유는 11월 1일부터 인상(292원)이다. 경유는 11월 1일부터 인상(278원)이다. 빙커 C는 11월 1일부터 인상(211원)이다. 프로판은 11월 1일부터 인상(915원)이다. 나프타는 11월 1일부터 인상(175원)이다. 주택유는 11월 1일부터 인상(72원 31저)이다.

精油社別가격

石油 29일 0시
電氣 1일 0시
불가피한

평균 6% 引上

값 5.7% 올라 油類

한국일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온전히 새롭고
發行人 洪惟演
總編輯 鄭基和
印刷人 李基和
編輯部 崔基和
社址 濟州道 中區 中區 14
郵便 掛號 110
電話 社 1部 120部
交際部 代碼 022-4151-4161
編輯部 022-4171
發行部 022-1017-1018
電話 022-663-6664
電報掛號 022-6379-6337
本報는 韓國 總理府 官
公報 發行者 也

968-1-3171-15
정예식
최정호